

백신 접종 후 결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3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다음주에 백신 접종을 예약해놨는데 혹시라도 후유증이 발생해 학교를 빠지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합니다.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어 결석 발생 시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기도 하고요.
_ 이미정 (43·서울 중구 신당동)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 인정, 3일 이후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확인 후 질병 결석 처리됩니다.

접종 당일로부터 이틀 후까지는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나 증명서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돼 학생부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출석으로 인정되는 인정 결석이 아닌 '질병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정 결석과 질병 결석 모두 고입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질병으로 인한 조퇴나 지각에도 동일 적용된다"고 전합니다. @

MORE TIP

접종 후 정상반응 학생은 등교·원격 수업 모두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학교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일과 2일째라도 반드시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 자료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bnni@naeil.com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이 궁금해요.

1019호 기사를 보니 올해부터 수능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분리돼 제공되고 탐구 두 과목 순서를 바꿔 풀거나 문제지를 올려두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더 자세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_ 김희정 (가명·46·서울 송파구 문정동)

수능 4교시에 치르는 한국사와 선택한 탐구(사회·과학·직업) 두 과목, 총 세 과목을 순서대로 철저히 분리해 응시하면 됩니다.

‘한국사와 탐구는 다른 과목인데 그간 답안지가 분리돼 있지 않았던 말인가?’에 대한 의문과 ‘탐구 두 과목은 응시 시간이 다른데 어떻게 순서를 바꿔 풀거나 다른 과목 문제지를 책상 위에 올려둘 수 있는거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작년 수능까진 한국사, 탐구 두 과목, 총 세 과목의 답을 모두 한 장의 답안지에 썼지만 올해부터는 한국사, 탐구 답안지를 분리해 총 두 장의 답안지가 제공됩니다. 탐구 두 과목의 답은 같은 답안지에 기입하면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까지 모두 포함된 문제지를 받습니다. 만약 과학 탐구 선택자라면 문제지에 8개 선택 과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학생이 선택한 두 과목은 푸는 순서가 있으며 각 30분씩 풀게 됩니다. 첫 번째 탐구 과목을 풀 때는 해당 문제지만 꺼내야 하고, 다 풀었다고 해서 두 번째 탐구 과목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탐구 두 과목의 순서를 바꾸는 등 탐구 관련 부정행위가 문제였는데 한국사와 탐구 답안지가 분리된 것이 큰 의미가 있겠냐는 질문에 교육부 대입정책과 수능 담당자는 “탐구 과목도 모두 분리해 제공하면 좋겠지만 시간·비용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 우선 이질적 과목인 한국사, 탐구의 답안지를 분리시켜 혼란을 줄이고자 했다”고 설명합니다. @

MORE TIP

올해부터 한국사와 탐구 답안지를 분리해 제공하므로 작년까지와 달리 한국사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한 후 탐구 영역 문·답지를 배부합니다. 탐구 두 과목을 풀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과 윤리>와 <한국지리>를 선택했다면 첫 번째 탐구 과목인 <생활과 윤리>를 풀 때 <한국지리> 문제지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으면 안 되며, 순서를 바꿔 <한국지리>를 먼저 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취재 김민정 리포터 mjkim@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